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27

JCCT 2022-9-15

## 잃어버린 das Ding과 라캉 정신분석의 사후 주체 - 무궁화 꽃은 피지 않는다 -

### The Lost Das Ding and A Posthumous Subject of Lacan's Psychoanalysis - Mugunghwa Flowers Do Not Bloom -

이동석\*

Lee Dong Seok\*

**요약** 이 논문은 자크 라캉(Jacques Lacan:1901~1981)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 VII” 연구이다. 국내에는 아직 번역본이 출시되지 않았다. 연구의 판본은 라캉 세미나 VII의 불어 원전과 영어 번역본을 이용하였다. 라캉은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에서 중요한 개념을 소개한다. 독일어로 das Ding(다스 디)이다. 우리말로 ‘큰 사물’로 번역되었다. 라캉은 이 용어를 불어로 La chose(라 쇼즈)로 소개한다. 영어로는 The Thing이다. ‘큰 사물’은 어릴 적 엄마가 부여해 준 사물이기도 하다. 또한 어릴 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라캉이 말하는 주체는 잃어버린 대상의 되찾기 위한 일생의 여정을 전개하게 된다. 이 지점을 라캉은 정신분석 윤리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본론에서 잃어버린 장소로서의 das Ding을 추적하여 윤리의 문제를 다시 재조명하려 한다. 첫째, das Ding의 기원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과 das Ding의 관련성을 통해 빈자리를 메우려는 주체에 대해 논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자아심리학과 das Ding과의 관계를 라캉의 도식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사후 주체를 다룰 것이다.

**주요어** : 주체, 사랑, 정신분석, 라캉, 사후성, 디(물), 무궁화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f “Ethics Seminar VII of Psychoanalysis” that Jacques Lacan (1901~1981) has the most attachment to. A translated version has not yet been released in Korea. The original French and English translations of Lacan Seminar VII were used for the study version. Lacan introduces an important concept in a seminar o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In German, it is ‘das Ding’. It is translated as ‘big thing’ in Korean. Lacan introduces the term in French as ‘La Chose’. In English, it is The Thing. “Big things” are also things that my mother gave me when I was young.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loss of childhood that is not completely resolved. Therefore, Lacan’s subject refers to develops a lifelong journey to recover the lost object. Lacan presents this point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psychoanalytic ethics. We try to re-examine the issue of ethics by tracing ‘das Ding’ as a lost place in the main article. First, We will look at the origins of das Ding. Secon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das Ding, We will discuss who tries to fill Ding’s void. Third, We will try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ego psychology and das Ding in Lacan’s scheme. Lastly, a posthumous subject will be dealt with through the play ‘Mugunghwa has bloomed.’

**Key words** : Subject, Love, Psychoanalysis, Lacan, Posthumous, Ding, Mugunghwa

\*정희원, 국제대학교 상담심치료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25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3일

Received: July 25, 2022 / Revised: August 20, 2022

Accepted: September 3, 2022

\*Corresponding Author: vaiolee9@hanmail.net

Dep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okje Univ, Korea

## I. 서론

이 논문은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 VII, Jacques Lacan, L'éthique de la psychanalyse LE SÉMINAIRE, Livre VII, Texte établi par Jacques-Alain Miller, Éditions du Seuil, 1986” 연구이다. 우리말 번역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라캉의 사위인 자크 알랭 밀레(Jacques-Alain Miller: 1944~)가 라캉의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서를 출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라캉은 27회의 세미나 구두 강의를 하였다. 라캉은 스스로 다시 출판하고 싶은 세미나를 세미나VII이라고 직접 언급한다.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정신분석의 윤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신분석에서 “승화”라는 것이 세미나VII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라캉의 승화 개념은 정신분석의 종결과 관계된 문제로 다루어진다.

우리말로 ‘큰 사물’이란 용어가 제시되고 있다. 독일어로는 ‘das Ding 다스 딩’이다. 라캉은 이 용어를 프랑스어인 ‘La chose (라 쇼즈)’로 세미나VII에서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에서 주목하는 주요한 개념은 ‘큰 사물(어떤 것)’ das Ding 이다. 우리말의 번역은 어렵다. 그 이유는 ‘큰 사물’인 das Ding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캉은 프랑스어의 la chose는 법의 뜻은 없고 사물이라는 단어로만 쓰인 다는 것을 언급한다.

“프랑스어에는 la chose라는 단어가 하나만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causa(원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법과의 어원학적 연결은 구체적인 포장 및 지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독일어에서도 원래 의미의 “사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차, 심의 또는 법적 토론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1]

라캉은 la chose를 독일어의 ‘Sache (사헤)’를 예들 들어 설명한다. 독일어의 Sache(사헤)는 사물과 법률을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라캉은 사물을 포함한 모든 어떤 것과 그것을 명시하고 지정했던 법의 상징적인 기원으로 das Ding(큰 사물)을 정신분석의 윤리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라캉의 la chose는 라틴어의 “causa(원인)”으로서 법적으로 명시된 하나의 좌표

이면서도 법과 삶의 불일치하는 이중적인 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계속 잃어버린 대상으로 끊임 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어지고 있다. 라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La Sache는 실제로 사물이며, 언어에 의해 지배되는 산업 또는 인간 행동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이 행동의 기원에서 처음에 암시적일 수 있지만, 사물은 항상 표면에 있으며 항상 명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2]

국내에서는 ‘라캉의 인간학 세미나7 강해’가 유일한 해설서이다. 백상현은 여기서 das Ding을 ‘엄마의 산물’ 또는 ‘엄마의 판본’으로 소개하고 있다. 백상현은 말하기를 “라캉이 주목하는 것은, 인간 심리의 중핵에 존재하는 어떤 역설적 대상 또는 자리의 개념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이것을 열쇠 뉴런 Schlüssel Neuronon이나, 운동성 뉴런 Motorische Neuronon이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들은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이 심리를 설계하고 건축해나가는 고정에서 원인이 되는 장소인 동시에 억압과 은폐의 대상이 되는 역설적 장소를 지시한다.”[3] 프로이트는 이것을 das Ding 큰 사물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필자는 명확하게 지칭할 수 없는 독일어 das Ding을 Ding(물, 物)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라캉도 정신분석 윤리 세미나에서 Ding(물, 物)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라캉이 Ding을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에서 사용한 이유를 본고에서 주목했다. 왜냐하면 Ding이 바로 정신분석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라캉은 윤리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필자의 시각으로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관념의 윤리는 위반을 못하게 하는 윤리로 강조했다. 이 테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라캉의 윤리는 다르다. 그가 주장하는 윤리는 불확정적인 것이고 잃어버린 어떤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잃어버린 어떤 것으로서 계속 갈망하는 대상이 윤리가 된다. 따라서 불확정적으로 남는 어떤 동경의 것이다. 팀 테마(Tim Themí : 1975~)는 다음과 같이 라캉을 언급한다. “프로이트의 ‘das Es(무엇인가?)’는 라캉에게 das Ding으로 해석된다.”[4] Ding(딩, 물, 物)의 자리는 정해지지 않는 상실의 장소 일 것이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론에서 필자는 첫째로 Ding의 기원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과 Ding의 관련성을 통해 Ding의 빈 자리를 메우려는 주체에 대해 논할 것이다. 세 번째로

라캉은 미국의 자아심리학을 비판하였는데, 자아심리학과 Ding 과의 관계를 라캉의 웨마L로 해석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Ding의 공백으로 드러나는 사후 주체를 다룰 것이다.

## II. 만물의 창조와 구멍의 탄생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물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란 것은 계속적이면서 몇 번은 멈춘 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서양미술사에서 이 물음에 아주 적합한 작품이 있다.



그림 1. 폴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캔버스에 유채, 1897-1898  
 Figure 1. Paul Gauguin,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Oil on canvas, 139.1 x 374.6 cm 1897-98

그림 1은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삶의 구성을 보여 준다 오른쪽에는 아기의 탄생과 중앙에는 중년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왼쪽에는 노년의 인간이 얼굴을 감싸고 무언가의 고통에 빠져있다. 작품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암시했다. 고갱의 작품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작품명의 裏面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음에 와야 하는 문장은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우리에게 제시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욕망과 법은 적대적인 힘들이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양극의 정신 시스템의 기호의 상호의존적인 요소이다.”[5] 이와 같이 대니 노부스(Dany Nobus)는 욕망과 법을 대치시키지 않고 양극적이지만 같은 선상에서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라캉은 'ÉCRITS 에크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과 억압된 욕망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6] 라캉은 윤리의 문제를 그의 'ÉCRITS 에크리'에서 '칸트와 함께 사드'라는 세미나를 통해 소개한다. 칸트의 입법의 주체와 사드의 원초의 주체를 넘는 지점에 정신분석의 윤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구엘 드 베이스테귀(Miguel de Beistegui: 1966~)는 칸트적 주체를 self-legislating subject(자기 입법 주체)라고 규정한다.[7] 자기를 입법화하는 욕망의 주체이다. 이와 대비하는 le sujet brut du plaisir(쾌락의 원초적 주체)를 언급한다.[8] 여기서 쾌락의 원초적 주체는 사드의 비유이다. 그러면서 미구엘은 das Ding(다스딩)에 대한 두 주체 사이에는 동일성과 유사성이 있다고 언급한다.[9] 백상현은 그의 세미나 VIII 해설서 "라캉의 인간학"에서 어머니가 부여한 산물로 설명하면서 '큰 사물'로 번역하였다. 백상현은 칸트나 사드가 가고자 하는 잃어버린 마지막은 Ding(물, 物)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잃어버린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이다. 따라서 Ding은 잃어버린 자리에 대한 회귀라 볼 수 있다. 미구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이 있다. - la chose, 또는 das Ding -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적인 대상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여전히 열려져 있고, 욕망의 한계이다. das Ding 의 물음은 목적이나 한 대상이 우리들의 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핍은 우리들 행동의 동기부여나 그 근원이 아니다.”[10]

Ding은 그 자체로서 남아있다. 그것은 라캉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le trou 구멍'이다. 이것은 파괴를 지향하고자 하는 프로이트식 죽음충동의 구멍이다.

고갱의 작품에서 표현된 대상은 삶의 욕망을 지속하고자 하는 Ding(물, 物)이다. 이와 동시에 죽음의 욕망으로서의 la chose 이기도 하다. 고갱의 입장에서 보면 삶(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욕망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고갱이 Ding을 암시하는 언급을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능가하거나 비슷한 작품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믿네. 나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 최악의 조건에서 고통 받으며 정열을 불태워

이 작품을 그렸어.”[11]

작품의 배경은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이다. 한 예술가가 문명에 대한 혐오로 원시의 섬에 간다고 하자. 예술가가 해석한 문명은 직접적인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술가가 철학자처럼 철학의 담론에 입각한 현실로부터의 피신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어떤 대상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작품 속에 표현한다. 하지만 라캉이 언급하는 것처럼 Ding(딩, 물, 物)의 주위를 돌고 있을 뿐이다. 라캉은 예술을 Ding에 다다르지 못하고 Ding 주위만 돌고 있다고 주장한다.

“Cette Chose (사물들)는 승화의 영역에 속하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모든 형태, 이것은 항상 공허함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autre chose (다른 사물)으로도 대리(재현)représentée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모든 예술은 이 공허함을 둘러싼 확실한 형태의 조직으로 특징지어진다.”[12]

라캉 정신분석 윤리 세미나에서 예술에 대한 언급과 이어지는 고갱의 언설은 잃어버린 Ding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나는 평화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 문명의 손길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 타히티로 떠난다.”[13]

고갱은 타이티에서 약 60여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위 문장은 고갱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평화 속에 존재라든가, 자유라든가’ 하지만 현실에서 고갱이 암시하고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실재계를 대리주체하고 있는 상징계의 공간(언어로 의미화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김석은 “실재계란 무엇보다 상징계가 주체의 의미 세계인 현실로부터 배제한 부분으로, 상징화를 벗어나는 모든 영역” 이어서 “환상, 주체 탄생 시 잃어버린 어떤 것, 언어적 질서로 표현하지 못하는 찌꺼기”로 설명한다.[14] 고갱의 언설을 라캉의 소외 도식으로 적용해보자. 아래의 공식은 오가사하라 신야(Shinya Ogasahara: 1956~)가 ‘라캉 세미나 VIII (1965-1966)’ 소외의 도식을 재구성한 것이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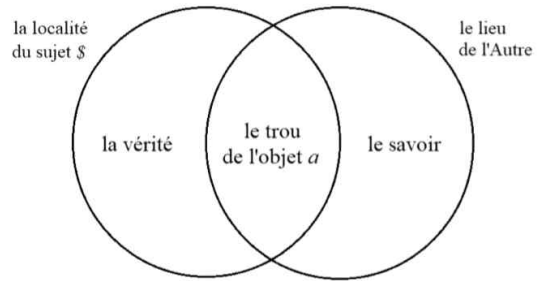


그림 2. 오가사하라 신야, 라캉 소외의 구조, 도표 10  
Figure 2.. Shinya Ogasahara, Lacan's Structure of Alienation, Diagram 10

그림 2의 왼쪽이 ‘la localité du sujet S(빛 금친 주체 S의 장소)’이다. 벤다이어그램에서 ‘la vérité(진리)’에 해당한다. 빛 금친 주체 S는 최초 기표인 S1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이다. 빛 금친 주체 S는 ‘aliénation(소외)’의 구조가 되고 소외의 장소에 가려진 채로 있다. la vérité (진리)는 빛 금친 주체 S의 자리에 위치한다. 진리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고갱이 말한 ‘평화 속에서의 존재’는 la vérité (진리)의 장소에 있다. 오른쪽은 ‘le lieu de l’Autre(타자의 장소)’가 있다 이것은 ‘le savoir (지식의 장소)’이다. ‘문명의 손길’과 ‘자신의 자유 지키기’는 문명과 자유를 결합시켜 자신의 지식의 의미화를 정당화한다. 문제는 타자의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다. 따라서 벤다이어그램의 겹치는 공간에서 진리가 아닌 빛 금친 주체 S와 타자의 장소에서의 la savoir(지식)은 구멍으로 남아있게 된다. ‘le trou de l’objet a(대상a의 구멍)’는 구멍이다. 이것은 잃어버린 대상으로서의 구멍이다. 여기서의 ‘objet a(대상 a)’는 Ding(딩, 물, 物)과 같은 것이다. 라캉은 세미나 VII 이후 Ding을 사용하지 않고 세미나 XI부터 대상 a로 사용한다. 고갱은 궁극적으로 Ding에 가고자 했던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구엘은 대상 a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것의 독립적인 텍스트에서 그 대상 a는 첫째로 욕망의 원인이고,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본래의 결핍이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할된 주체와 본래의 분열을 의미한다. 이 das Ding은 우리가 보았던 것, 친숙할 수 있는 하나이고, 분열을 넘은 한계점을 알린다. 그러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16]

주목해야 될 지점은 결핍으로서의 '대상 a'이다. 결핍은 구멍이다. 원래부터 삶과 죽음의 구멍은 존재했다. 따라서 구멍을 매우기 위해 라캉 정신분석의 주체는 계속 사후적으로 의미화 되는 과정을 거친다.

### III. das Ding의 기원 추적

#### 1) das Ding 의 기원

das Ding은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초기의 논문 '과학적 심리학초고(Project for a Scientific Psychology, 1954)'에서 나온 개념이다. 프로이트는 최초의 만족체험이 남긴 기억흔적의 사건을 이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첫 단계의 수유시기에 있어 최초의 엄마로부터 영아에게 부여된 이미 상실해버린 원초적 쾌감의 기억흔적이 이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Ding(물, 物)은 이미 상실된 것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최초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상실된 것에 대한 추적을 라캉의 1958년 *Écrits*, 에크리에 수록된 세미나 "치료를 이끌기와 그 권력의 원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캉은 분석가에 대한 전이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① "L'amour c'est donner ce qu'on n'a pas." [17]
- ② "Il n'y a pas de plus grand signe d'amour que le don de ce qu'on n'a pas." [18]

① 사랑은 갖지 않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②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시는 없습니다. '사랑은 가지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캉이 정신분석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첫 번째의 사랑'인 갖지 않는 것을 주는 것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했다. 하나는 아기가 울 때 무조건적으로 수유를 주는 것이다. 이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기가 울면 수유로 울기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아기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수유를 주면 해결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배고픔의 원인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엄마는 오로지 아기가 울 때 수유로 모든 것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아기는 대상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 엄마로부터 혹은 아기 자신으로부터

이다. 아기의 순수한 욕구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 이유섭은 말하기를 순수한 욕구란 공중할 수 없고, 욕구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요청(요구)하고 대상의 응답으로 만족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9] 그는 아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를 순수한 욕구로 표현했다. 두 번째는 아기가 울 때 무조건적으로 수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수유 전에 하나의 과정이 있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수유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의식에 입각한 상징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후자는 무의식을 반영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두 개의 사랑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기의 측면에서 잃어버린 Ding(물, 物)이다.

라캉 세미나 XXI 의 타이틀인 "Les non-dupes errent. 속지 않는 자는 방황한다."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사랑을 유추할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엄마이다. 따라서 방황한다. 엄마의 방향은 무조건적인 수유이다. 실제 아이의 상태를 수유라는 상징을 가지고 실제계를 대체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라캉의 언급을 우리는 따를 수 있다. "ceux qui ne sont pas amoureux de leur inconscient, errent. (자신의 무의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황한다)." 자신의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방황하는 것이다. 라캉의 이어지는 문장을 보자. "c'est-à-dire ceux qui ne font pas tous leurs efforts pour y coller.(그것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엄마는 자신의 욕망을 수유라는 상징계 기표에 떠맡겨진 엄마이다. 이때의 엄마는 부재와 혼돈의 엄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외 과정의 전형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실제아이의 상태를 수유라는 상징을 가지고 실제계를 대체하지 않고 Ding으로 가려고 한다. 상실된 것을 매우려고 하는 엄마의 행위는 아이를 전자보다 덜 소외시킨다.

#### 2) 자아심리학 비판과 das Ding 의 부재

라캉은 1953년부터 세미나를 시작하여 1980년 세미나 XXVII까지 약 27년간에 걸쳐 교육분석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라캉의 모든 저작은 구두강의를 속기법으로 적거나 녹음된 것을 라캉의 모든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의 사위 자크 알랭 밀레(Jacques-Alain Miller: 1944~)가 출판한 것이다. 그의 열성적인 활동이 라캉

연구에 있어 엄청난 공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미나 I 권과 세미나 XI 권밖에 출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서적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에, 세미나 XI 이후의 연구는 많이 미진한 상태이다. 라캉의 유일한 저술서인 ÉCRIT(에크리)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번역본이 우리나라에는 2019년에 출판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81년에 ÉCRITS 제 3권이, 제 2권은 1977년에, 제 1권은 1972년에 완역되어 번역본이 출시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국내의 정신분석 연구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알랭 밀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라캉 세미나에 대한 오역이 지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잔존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적판인 스테페라(해적판)가 전부 붙어 본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 예로 세미나 XI의 경우 마지막 부분에 심각한 오역(상징계를 거치지 않는 실재계)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밀레 자신의 태생이 유대인이고, 물리학 전공자였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 예로 라캉의 27년간의 세미나를 10년 주기로 개념변천을 나누고 있는 부분도 밀레식의 해석을 알 수 있다. 1953년에 라캉의 유명한 삼계(상상계, 상징계, 실재계)가 나온다. 50년대에는 라캉의 쉐마 도식을 중심으로 관계성을, 60년대에는 정신분석의 근본개념들과 상징계, 그리고 70년대에는 잉여향락과 nodalite(결합성)을 중심으로 보로메오스 매듭이 이어진다. 아주 간략한 라캉의 정신분석의 과정이지만, 밀레의 경우 이것을 시대별로 별도로 구획하여 개념지우는 작업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라캉이 교육분석 세미나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정신분석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다. 라캉이 세미나 VII 초입에서 ‘정신분석은 죽음충동을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앞에서 논하였듯이 정신분석의 윤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후기 라캉 세미나 XX에서는 정신분석의 기초는 “Il n’y a pas de rapport sexual 성관계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세미나 XXI “Les non-dupes errent(속지 않는 자는 방황한다.)”에서 L’introduction du nœud borroméen 보로메오 매듭의 소개하면서 매듭의 결합성이 정신분석의 기초라고 다시 언급한다. 라캉은 이와 관련되어 말하기를 “ce fondement que cette année je donne à mon discours dans le nœud borroméen(올해 내가 보로미안 매듭에서 내 연설에 제공하는 이 기초)”

라고 세미나를 이어나간다. 보로메오 매듭은 라캉 초기 강의인 1953년 강연에서 라캉이 제시한 La triade du symbolique, de l’imaginaire et du réel 삼계인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인 ‘place 장소’로서 다시 제공된다.

라캉은 미국의 자아심리학을 비판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이유는 Ding(딩, 물, 物)이 자아심리학에 결여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림 3의 그래프는 라캉 세미나 II “프로이트 이론 및 정신분석 테크닉에서의 자아” 1955년 5월 25일 강의에 처음 수록된 라캉의 쉐마 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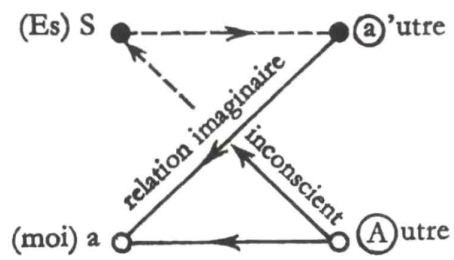


그림 3. 라캉, 세미나 II, 쉐마 L, 1955.5.25  
Figure 3. Jacques Lacan, Seminar II, Schema L, 5.25.1955

La triade du symbolique, de l’imaginaire et du réel 삼계인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는 1953년 7월 8일 강의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1953년 9월 26, 27일의 강연 “Fonction et champ de la parole et langage psychanalyse(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장 : 로마강연)”에서는 아직 ‘Autre 타자’가 도입되지 않았다. ‘le discours de l’autre 타자의 담화’나 ‘e désir de l’autre 타자의 욕망’으로 표기되고 있다. 위 도식인 schéma L은 정신분석에서 아주 중요하다. 위에 2지점과 아래의 2지점으로 나누어 있다. 라캉은 각 지점을 τ οπολογου (topology) 위상배치로서 자리를 지정해 놓고 있다. 오른쪽 상단의 Es는 프로이트의 das Es 을 나타낸다. das Es 는 우리말로 ‘무엇인가’이다. das Es 는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 옆에는 라캉의 주체 S(주체는 subject를 말함)가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주체 S의 자리는 실재계를 나타낸다. 오른쪽 상단의 autre (소문자 타자)가 위치한다. 소문자 타자는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이 된다. 이것과 대각선 대칭으로 있는 ‘(moi) a’는 자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relation imaginaire (상상적 관계를 의미한다. ‘(moi) a’ 자아의

오른쪽은 Autre (대문자 타자)가 위치하고 있다. 이 자리는 상징계(언어로 의미화된 것)의 자리이다. 대문자 타자는 그리스도나 부처와 같은 유일신을 의미할 수 있다.

라캉의 세미나에서 미국의 자아심리학은 ‘relation imaginaire (상상적 관계)’에만 머문다. 왜냐하면 오른쪽 상단의 autre (소문자 타자)가 상대자가 되고 대각선 대칭인 ‘(moi) a’ 자아가 내담자가 된다. 이들의 관계는 라캉의 분석가 정의인 “le sujet suppose savoir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만 머문다. 상상적 관계에만 머물면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무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자아심리학은 라캉에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자아심리학은 S1(주체, 최초 기표 혹은 주인기표) 주체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감춰진 주체인 빛 금친 주체 S의 환상을 벗겨낼 수 없다. 자아심리학이 강화하는 S1은 소문자 타자 autre에 의해 보장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소문자 타자가 전달하는 말의 의미가 의미화로 진행될 때 내담자는 강력한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 편승된다. 따라서 전이는 일어나지 않고, 무의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상상적 관계를 넘는 곳에 Ding(물, 物)의 상실된 것을 그대로 묻어 두고 상담이 종결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담자(안다고 가정된 여러 가지의 신)를 만나는 가에 따라 S1(주체)이 결정될 것이다.

세미나에서 보여주는 상징계가 실재계로 가는 것을 막는 상상계를 볼 수 있다. 실재계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주체의 자리의 보여준다. 이 자리에는 Ding(물, 物)이 있다. 세미나 L 은 1955년에 소개되었지만, 그 후의 세미나 VIII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Ding의 개념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Ding의 자리를 소급하는 우리나라의 놀이를 다룰 것이다.

#### IV. 무궁화 꽃은 피지 않는다.

필자가 유년기에 친구들과 만나 놀이터에서 종종 했던 술래잡기 놀이가 있었다. 놀이 제목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이다. 아주 단순한 놀이이다. 한사람이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발화하고 거의 동시에 뒤를 돌아본다. 발화행위를 하고 뒤를 돌아볼 때 마다 놀이에 참가한 아이들은 발화자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놀이이다. 그런데 뒤를 볼 때 움직이고 있으면, 그 아이는 그 게임에서 탈락한다. 결국 최대한 가까이 오는 자가 발화자를 터치하면 승자가 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놀이와 행위자의 관계이다. 놀이는 말하는 존재의 암묵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놀이이다. 놀이의 음성이미지는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 발화자 뒤에 “누가 있다, 없다.”만 확인하면 된다. 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든 안 피든 간에 음성에 따라 멈추기를 반복하면 된다. 아이들의 행위는 무궁화 꽃의 시니피앙을 상상적 공간(상상계) 속에서 실재계를 대리표상 한다. 실제로 무궁화 꽃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니피앙(기표, 청각이미지)[20]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가상의 무궁화 꽃이 놀이에서는 만족감을 주는 구원이 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裏面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지속시켜 주는 타자의 장소가 존재한다. 이 장소는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야외 놀이터이다. 부모가 없는 공간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만 18개월 된 그의 손자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포르트다’란 게임이다. ‘포르트다’는 “없다, 독일어 fort 포트 - 있다(앞으로 나아가다). 독일어 da 다”를 의미한다. 실타래를 던지고 다시 가져오는 반복행위를 통해 아이는 무의식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손자는 엄마가 부재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엄마의 부재를 감지하고 “있다, 없다.”의 대체인 실타래 던지기로 부재를 인지함과 동시에 부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유섭은 어머니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동시에 언어의 세계에 동참한다고 말한다.[2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부모의 공간 밖에서의 부재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무궁화 꽃을 통해 빈 자리를 메우는 과정에 있다. 무궁화 꽃이란 시니피앙을 받아들이고 놀이란 상징적 세계에 편승한다. 아이들은 언어의 세계에 동참하는 게임을 통해 상징적 질서 안에서 또 다른 구원인 부모의 부재를 메우려 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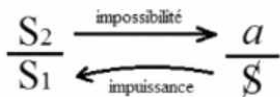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또 다른 해석은 우리는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라캉은 parlêtre는 parle와 être를 합친 조어를 만든다. 이것은 존재의 집이며 말하는 존재를 의미한다.[22] 그러면서 라캉은 ‘manque à être 존재결여’라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주체는 시니피앙의 대리주체로 들어가면서 언어의 세계에 동참하는 순간, 사물은 죽은 사물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놀이분석에서 보았듯이 마치 게임주체가 게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음성이미지에 의해 언어의 세계가 게임주체를 움직이고 있다. '말하는 주체 ça parle'의 의미는 '그것 & 거시기가 말하고 있다'이다.[23] 이것은 팔루스 phallus(남근)가 말하는 것이다. 라캉은 팔루스를 기표로 말한다. 기표이기에 욕망의 원인이 된다. 기표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궁화는 욕망의 원인으로서는 팔루스이다. 팔루스는 따라서 무궁화 꽃은 항상 피거나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무궁화 꽃이 피어버리면 무궁화 꽃은 의미화 된 죽은 꽃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개화되지 않는 장소로 남아있는 시니피앙이 된다. 말하는 존재인 주체는 ça parle는 '그것 & 거시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 상상계 위치의 무궁화는 실제계의 무궁화를 갈망하면서 상징계의 꽃으로 대리만족한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이다. 또한 놀이공간에서는 부모이면서 거세의 시니피앙이기도 하다. 무궁화를 대신하는 꽃은 있으나, 그 자리에는 무궁화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 타자의 장소에서 법의 위반이 될 것이다. 라캉 세미나XVII에 등장하는 대학담화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적용해 볼 수 있다.

le discours de l'université (DU)

le désir impossible de l'Homme



Les places sont celles 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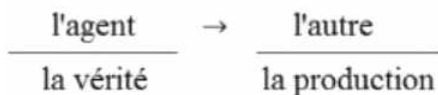


그림 4. 라캉, 또 다른 에크리 대학담화; 2001. p447  
 Figure 4. Jacques Lacan, Autres écrits 'Discourse of the University', seuil : 2001.p447

그림 4에서 S2의 자리에 꽃이 위치하고, S1의 자리에 무궁화가 위치한다. S1의 자리는 진리(la vérité)의 자리이다. 무궁화는 진리의 자리에서 번역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무궁화는 진리이지만, 대리자(l'agent)의 S2에

의해 감춰진다. 대학담화에서 위의 백터는 불가능(impossibilité)을 의미한다. 타자 자리(l'autre)의 꽃 a은 빗금친 주체  $\mathcal{S}$ 인 생산자(la production)의 자리에서 계속 외친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고 하지만 진리의 자리에 있는 S1은 무능력(impuissance)을 나타내기에 생산자 자리의 빗금친 주체  $\mathcal{S}$ 는 진리에 대해 무능력(impuissance)으로 있다. 번역이 가능한 것은 대학담화의 진리의 자리에 S1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S1은 주체의 드러남을 막는 역할을 한다. 라캉의 주체는 최초의 S1이 되지를 못한다. 결국 S1에 의해 가려진 주체인 빗금친 주체  $\mathcal{S}$ 가 된다. 번역은 진리이면서 진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놀이의 상상적 대상인 무궁화는 이 문장에서 진리의 자리인 번역에 불과하다.

V. 결론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 있다. 필자는 그것을 Ding(딩, 물, 物)으로 주장했다. 라캉은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 VII'에서 Ding의 문제를 다루었다. 세미나 VII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Ding 개념이 라캉의 이후에 전개되는 세미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라캉은 정신분석을 윤리의 지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라캉은 세미나VII의 "선의 기능"을 통해 철학사에서 주요한 인물들을 묶어서 언급한다. 라캉의 들추어내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선의" 문제이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금욕주의, 쾌락주의, 아퀴나스의 신의 증명은 라캉 정신분석에 있어 환상이란 것이다. 사상가들은 인간의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위반의 사상적 법체계를 만들었다.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1897~1962)는 휴머니티의 요람(Cradle of Humanity)에서 라스코 벽화를 예를 든다.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동물들을 착취하고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을 사냥의 제물로 마구 사용하였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란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갖 잔인한 행동과 위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하다. 선의 이데아와 행복 같은 것은 어쩌면 인류를 지속시키기 위한 궤변일지도 모른다. 선의 이데아와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에게 행복은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라캉은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라캉에게는 글로 쓸 수 없는 불가능이다. 하지만 인간은 지속적으로 행복을 쓰려고 노력해왔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행복은 지속가능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쓸 수 없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 즉, 불가능의 추구이다. 이것이 Ding(물, 物)이 마련한 장소이다.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철학의 궁극적인 추구는 바로 잃어버린 Ding의 자리이다.

서론에서는 Ding의 두 가지에 대해 논하였다. 법으로서의 Ding과 어떤 것으로서의 Ding이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Ding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환상의 세계인 지식과 법으로 무장된 세계 裏面에는 우리가 실제로 갈망하는 Ding이 있다. 라캉이 정신분석에서 제기한 윤리는 윤리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사고의 전환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는 라캉에게는 윤리가 아닌 위선이 된다. 윤리는 결코 다다르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따라서 그 주위에는 윤리의 모방만이 있을 뿐이고, 윤리의 모방만이 반복되었다.

고갱을 통해 윤리의 시작 지점과 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서 삶의 탄생과 죽음을 작품으로 표현했으나, 고갱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장소는 Ding의 장소였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다루었다. 수유기의 결핍에 의한 욕망의 상실은 엄마의 아기에 대한 이상적인 사랑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결국은 엄마의 사랑과 아기의 욕망 불일치는 항상 간극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캉은 자아심리학을 비판한다. 자아심리학은 ‘moi 자아’ 만을 강화하는 것이고 das Es(무엇인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을 라캉 슈바 L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라캉에게는 팀 테마의 주장대로 das Es(무엇인가)는 das Ding으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Ding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실재이기도 하다. 자아심리학의 자아는 Ding의 장소에 가지 못하고 소타자 와 상상적 관계에서 맴돌 뿐이다.

후쿠하라 타이헤이(Hukuhara Taihei: 1955~)는 잃어버린 Ding의 장소를 아담과 이브의 자리로 묘사한다. Ding의 장소는 아담과 이브의 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뱀의 유혹 때문에 무과화를 먹고 추방된 장소이다. 이 장소는 절대로 돌아 올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 다루었다. 무궁화 꽃은 Ding이 만들어 낸 허상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주체가

대리 표상한다. 놀이를 통해 주체는 사후 주체로 자리 매김한다. 놀이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된 대상이 ‘관계있다, 관계없다.’의 상실과 충족의 관계에서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Ding은 라캉 정신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라캉은 이후의 세미나에서 Ding에서 파생되는 개념을 다룬다. 응시, 목소리, 대상 a, 잉여향락, 실재 등 많은 주요개념들이 펼쳐진다. 앞으로 연구는 라캉 사후 주체에 대한 탐구와 성경을 통한 연결고리를 통해 라캉 ‘정신분석의 윤리에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J.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with notes by D. Port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Seminaire, Livre VIII*”, W. W. Norton & Company, p. 43, 1992.
- [2] J.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with notes by D. Port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Seminaire, Livre VIII*”, W. W. Norton & Company, p. 45, 1992.
- [3] S. H. Baek, “*Anthropology of Lacan 「Seminar 7」 Commentary*”, Paju Hugobooks, p. 44, 2017.
- [4] T. Them, “*EROTICIZING AESTHETICS In The Real with Bataille and Lacan*”, ROWMAN & LITTLEFIELD, p. 86, 2021.
- [5] D. Nobus, “*The Law of Desire*”, p87 and “*kant with Sade*” London : PalgraveMacmillan, p. 145, 2017.
- [6] J. Lacan, “*ÉCRITS*”. tr.,by Fink, New York-London : W. W. Norton & Company, p. 660, 2002.
- [7] Miguel de Beistegui, “*Lacan :A Genealogy*”, BLOOMSBURY : New York, p. 88, 2021.
- [8] J. Lacan, “*ÉCRITS*” tr.,by Fink, New York-London : W. W. Norton & Company, p. 775, p. 654, p.907, p.862, 2002.
- [9] Miguel de Beistegui, “*Lacan :A Genealogy*”, BLOOMSBURY : New York, p. 88, 2021.
- [10] Miguel de Beistegui, “*Lacan : A Genealogy*”, BLOOMSBURY:New York, p. 80, 2021.
- [11] O. H. Hong, A woman who reads pictures, Korea Policy Broadcasting Service, 202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tv520&logNo=220689523840>
- [12] J.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with notes by D. Port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Seminaire*”, *Livre VIII*, W. W. Norton & Company, p.129,, p.130, 1992.

- [13]O. H. Hong, A woman who reads pictures, Korea Policy Broadcasting Service, 202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tv520&logNo=220689523840>,
- [14]S. KIM, “Magical Characters Leading to ÉCRITS of Lacan”, Salim, p237~238, 2007.
- [15]S. Ogasahara, “*HEDEGGER AVEC LANCAN*”, Japan : Seidosha. Diagram 10, 2020.
- [16]Miguel de Beistegui, “*Lacan :A Genealogy*”, BLOOMSBURY : New York, p. 121, 2021.
- [17]J. Lacan, “*ÉCRITS*”. tr.,by Fink, New York-London : W. W. Norton & Company, p.516. p. 618, 2002.
- [18]J. Laca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Edited by Jacques-Alain Miller BOOK IV, “*The Object Relation*” translated with notes by L. V. A Roche, lecture January 23, 1957.
- [19]Y. S. LEE, “*Freud, Lacan’s psychoanalysis of love*”, Seoul : PAKYOUNGSA, p. 82, 2020.
- [20]D. S. LEE, “*Signifiant and Lacan Psychoanaysis Narcissism of Repetition and Reflection*”, JCCT Vol. 7, No. 4, pp. 76, November 30,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DOI : <http://dx.doi.org/10.1770/JCCT.2021.7.4.137>
- [21]Y. S. LEE, Freud, Lacan’s psychoanalysis of love, Seoul : PAKYOUNGSA, p. 142, 2020.
- [22]S. Ogasahara, “*HEDEGGER AVEC LANCAN*”. Japan : Seidosha, ,p. 142~143, 2021.
- [23]Y. S. LEE, Freud, Lacan’s psychoanalysis of love, Seoul : PAKYOUNGSA, p. 267, 2020.